

유럽 대형 금융사 아시아 선박금융시장에 눈독

중국 등 아시아역내 선박수요 급증추세에 대비



중국 조선 규모의 확대와 아시아 역내 선박 수요 급증에 따라 유럽 대형 금융업체들의 아시아 선박금융시장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는 아시아 선박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내년 1월1일부로 홍콩에 선박금융서비스 지역본부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으며, 프랑스 BNP파리바그룹 역시 아시아 지역 선주들을 타깃으로 선박금융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BS는 홍콩 지역본부 설립에 대해 “해운시황의 고저를 파악해 투자를 진행한다기 보다는 사업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며 최근 중국은행 지분을 인수한 것과도 업무적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작년 8월 메릴린치, 허치슨 암포아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국은행 지분 10%를 31억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

RBS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박금융 규모가 1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이 회사의 전세계 선박금융 규모인 17억달러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다.

한편으로, 프랑스 최대의 보통은행인 BNP파리바그룹은 아시아 지역에서 선박펀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회사는 최근 자국 선사인 CMA CGM이 발주한 12척의 컨테이너선에 대한 금융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박금융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CMA CGM이 발주한 선박은 1,700TEU급 4척, 4,400TEU급 2척, 5,100TEU급 6척 등으로, 총 선가는 8억달러에 달하며 2007-2008년 사이에 인도 예정이다.

BNP파리바는 이번 선박 발주에 대한 용자 고문으로, 2억5,400만달러의 7년 기한 어음 발행과 3억달러의 자산저당 채권 보증, 2억4,500만달러의 신디케이트론을 주도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한 선박금융은 세계적으로 첫 사례이며, 이미 유럽과 미주, 아시아 투자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선박금융 서비스를 아시아 지역 시장에 널리 보급할 계획이며, 이미 몇몇 정기선사들로부터 문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